

---

# 어린이와우유

서울 은혜국민학교  
교사 권희령

---

“해야 우유 먹어야지, 그래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거라”라는 소리는 누구나 한번씩은 들어본 귀에 익은 소리다. 또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으면 키가 장대처럼 크다.”고 하면서 우유를 권하는 것도 주의에서 항상 듣거나 스스로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런 이유로 해서 어린이에게 우유를 매우 많이 권하고 있다. 물론 요즈음을 어린이 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건강 필수품이 되어 버렸지만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우유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유는 중성이어서 산성을 중화시키는 역할도하고 무기질과 많은 영양가를 담고 있어 발육촉진에도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학교에서는 우유급식이 보편화되어 있어 하루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우유공급이 어린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유에 대한 어린이들의 의견이 각양각색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흰 우유 보다는 딸기 초코우유를 훨씬 더 많이 찾고 있는데 그 까닭은 흰 우유는 거북한 데 반해 그밖에 우유는 향기가 나고 맛도 자기들의 입맛에 좋다는 것이다. 또 어떤 아이들은 우유곽에 따라서 선택하는 적도 있다고 한다. 우유를 담고 있는 종류는 병, 삼각모양의 비닐봉지 그리고 흔히 먹는 사각 모양의 카톤 팩이 있는데 우유병은 깨지기 쉽고 유리조각에 다쳐서 싫어하고 삼각

모양의 봉지는 먹기가 불편할 뿐 더러 입안에 비닐에 다친 적이 있다고 한다.

사각 모양의 팩은 먹기에 편리해서 좋은 데 짓궂은 아이들이 발로 밟아 짹짹 놀란다면서 불평을 털어 놓는다.

자기가 우유곽 공장 주인이 된다면 깨지지도 날카롭지도 않고 밟아도 소리가 않나는 최고의 우유곽을 만들겠다는 녀석도 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즈음 아이들이 너무 영리하다는 생각도 해본다. 그러면서도 경험에서 느끼는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때에는 무척이나 진지해서 대견스러워 보일 때가 많다.

아몽든 우유는 어린이들에게 가깝고도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왜냐하면 하루는 4학년 아이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다.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우유를 꼭 먹어야 하나요?”하는 것이었다. “왜! 우유먹는 것이 싫으니?”하고 되물으니 “전 우유냄새만 맡아도 매스껍거든요, 하지만 우유를 먹으면 키가 커진다고 해서 억지로 먹는 데, 집에서 어찌다 우유를 먹지 않으면 엄마가 막 화를 내세요, 전 정말 우유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 아이의 말에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을 수 밖에 없었다. 어찌보면 그 녀석이 너무 우유먹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또 한아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어른들은 이상해요, 우유가 좋아서 먹는 어른도 있지만 건강을 위해서 먹기 싫은 것도 기를 쓰고 먹는 어른도 있으니까요, 더구나 우리 반에는요 우유에다 밥을 말아 먹는 애도 있어요, 그런것을 보면 너무 희안해요 저는요 흰우유보다 바나나우유를 좋아하는 데도 엄마는 왜 자꾸만 흰 우유만 사다가 주시는지 이제는 정말 흰 우유곽도 보기가 싫어요 어떤 때에는 꿈속까지 흰 우유가 쫓아와서 괴롭히기도 해요, 흰 우유 먹으면 키도 크고 얼굴도 하얗게 된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사람도 전봇대처럼 크고 얼굴도 하얗겠조.”

이렇듯 우유에 대한 어린이들의 의견은 다양하

다.

우유를 밥먹듯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한약 가루약 다음으로 싫어하는 아이도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러나 체육시간을 끝내고 교실에 들어와 시원한 우유를 먹으면서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아이들에게 우유가 역시 좋은 친구라고 느껴진다.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거울 앞에서 팔을 접으며 자기의 알통을 보고 기뻐서 흐뭇해 하는 녀석, 키가 작은 아이들도 내가 조금있으면너 보다 이만큼은 더 커있을 꺼야 하며 손으로 한 뺨을 벌려 보이면서 우유를 먹으면 다른 아이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우유를 찾는 분주한 교실에는 웃음꽃이 활짝 핀다. 그런가 하면 급식을 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일어난다.

6학년 여자아이 둘이 우유당번을 두달 동안 계속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당번을 바꿔주실 생각을 안하시니까 그 두 아이는 우유를 먹지 않기로 결심하고 한달 동안 우유급식을 중단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에도 계속해서 우유

당번을 하게되어 꽤나 꼴이 나있었는지 “선생님은 힘센 남자애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급식도 안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하면서 입을 한 뺨정도 쪽 늘어 뜨리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끝난 얼굴들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그동안 일이 자신들의 사정을 얘기하는 데 화나게도 뵈겠다 싶어 당번을 바꿔 주었다. 그리고 복도에 마주쳐서 “너희 이제 우유 안먹니?”하고 물었더니. “아뇨, 다시 먹기로 했어요.” 하고 인사를 하고 막 뛰어가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녀석들 생각만 하면 사랑스런 웃음이 나오곤 한다.

어린이와 우유는 뿔레야 뿔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유는 어린이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집 아기도 밥을 젓혀 두고 우유만 찾아가끔 걱정도 되지만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면 우유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되니까 말이다.

퇴근길에는 우유를 한통 사서 아이와 함께 나눠 먹어야겠다.

## 젖소가격 동향(全國)

(단위: 천원/두)

구	분	초유시기		분유시기		수 정 계	초임만기	성 우			
		암	수	암	수			초산우 (중)	다산우 (중)	노산우 (상)	수 소 (4백kg)
경기	8월10일	340	240	406	300	820	1,740	1,270	1,050	796	853
	8월20일	342	240	416	300	827	1,740	1,270	1,060	833	853
강원	8월10일	353	250	420	310	853	1,600	1,517	1,200	740	910
	8월20일	350	250	413	300	850	1,583	1,500	1,200	740	910
충북	8월10일	360	250	420	340	840	1,700	1,450	1,065	865	850
	8월20일	340	250	420	340	800	1,500	1,450	1,100	840	880
충남	8월10일	378	258	464	343	884	1,796	1,356	1,125	862	923
	8월20일	375	263	454	350	865	1,785	1,342	1,120	865	925
전북	8월10일	360	255	430	360	880	1,750	1,390	1,020	795	900
	8월20일	350	250	440	340	870	1,750	1,380	1,020	790	900
전남	8월10일	330	250	400	345	795	1,650	1,383	1,070	858	865
	8월20일	300	250	380	330	750	1,500	1,310	1,070	840	860
경북	8월10일	340	250	390	320	800	1,650	1,350	1,100	700	870
	8월20일	330	250	380	320	780	1,650	1,350	1,090	750	900
경남	8월10일	343	225	381	276	840	1,720	1,623	1,243	953	842
	8월20일	327	214	363	263	830	1,720	1,623	1,243	920	832